

## 중국어 사동 표현과 거리 도상성

李 修 珍\*

<目次>

I. 머리말	IV. 사동의 형태-통사적 요소의 비분리와 분리
II. 도상성 원리	V. 마무리
III. 거리 도상의 원리에 따른 사동 표현 분석	

### I. 머리말

중국어의 사동 표현은 크게 겹류사나 동사+결과보어로 구성되는 어휘 사동과 ‘使’ ‘讓’ ‘叫’ 등의 사동 표지사가 겹어식 문장을 구성하는 통사 사동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중국어의 사동이 주로 아래와 같은 표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의가 일치된다.

- i) 致使賓語句 : 타동사/자동사/형용사+목적어, 동사+결과보어+목적어구문
- ii) 使字句 : 사동 표지사 ‘使’ ‘讓’ ‘叫’ ‘吩’ 등이 겹어식 구조를 형성하는 구문
- iii) 得字動結句 : V得+보어의 형식으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
- iv) 把字句 : 표지사 ‘把’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

그러나 이들의 분류 기준과 분류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使’를 일종의 사동사로 보고 ‘使字句’‘遞系句’‘致使賓語句’를 어휘사동(詞彙致使), ‘動結句’‘得字動結句’를 통사사동(句法致使)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周紅, 2005), 使令句·使成句(動結)·部分得字句를 어휘 사동으로 가지며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를 사동 용법을 가진 어휘를 使動句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宛政新, 2005). 본고에서는 Comrie(1989)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박미정

- 1) a. 你嚇了我一跳。  
네가 나를 놀래켰잖아.  
b. 你使我嚇了一跳。  
네가 나로 하여금 놀라게 했잖아.

1a)는 어휘 사동에 해당하고 1b)는 통사 사동에 해당하는 예로 이 두 문장은 모두 '너로 인해 내가 아주 놀랐다'라는 하나의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동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표상하는가? 이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이들은 동일한 기저 구조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과 서로 다른 기저 구조로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2) a.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b.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2)는 두 사동 표현의 비동의성을 주장하는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이다.(Shibatani:1973) 2a)는 사동주인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히는 동작을 하지만, 2b)의 경우 어머니의 사동 행위로 피사동주인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중국어의 예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즉 1a)의 '你'는 '我'를 놀라게 하는 직접적 행위를 수행했으며, 1b)에서 '你'는 '我'가 놀랄 수 있는 보다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문장의 사동성의 차이와도 결부되는 것으로 결국 이들이 동일한 문장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사동 표현의 형태-통사적 차이가 사동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지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그 근거를 거리 도상의 원리에서 찾을 것이다.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두 사동 표현의

(2001)의 분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여 i)을 어휘사동으로, ii)를 통사사동으로 분류하며, iii)과 iv)의 분류는 더 많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본고의 논의 범위에서 잠시 제외하기로 한다.

의미상 특징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도상성 원리

어휘 사동과 통사 사동은 사동의 의미를 구현하는 형식적 차이이며 앞서 여기에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제하였다. 형태-통사적 차이를 의미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어휘에서부터 통사에 이르기까지 언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형태-의미’라는 결합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사부와 의미부는 서로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두 사동이 비록 동일한 사건 명제를 가진다고 해도 형식적 차이와 결부되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 의미적 차이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도상성의 원리, 그 중에서 거리 도상의 원리에서 찾고자 한다.

도상성 원리에서는 의미 층위에서 볼 때 문장을 구성하는 언어 요소들의 구조적 형식과 순서 등이 화자의 물리적 경험이나 인식의 순서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언급한 언어체계의 ‘형태-의미’ 결합 역시 반드시 자의적(arbitrary)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도상성(圖像性)이라는 비자의적(non-arbitrary)인 속성도 가질 수 있다고 여긴다. 이 비자의성은 일종의 도상적 본능이며, 이는 언어 사용자들에게는 비교적 강력한 본능이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두 사동의 형태-통사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와의 관계를 도상성 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비자의성에서 개념적 차이가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지 방식이나 태도가 언어의 형식적 구조에도 반영될 수 있으며, 두 사동 구문 또한 화자의 인지모형에 대해 도상적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상성은 사건 명제의 특성에 따라 양(量)의 원리(Quantity principle), 순서의 원리(Sequencing principle), 거리의 원리(Distance principle)로 나눌 수 있다.<sup>2)</sup> 두 사동의 특징은 거리의 원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으나, 도상

성 원리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의 원리 및 순서의 원리를 통한 해석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양의 원리(Quantity principle)는 언어 형태의 양과 의미(혹은 정보의 양이나 정도)의 양이 서로 비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형태의 양이 많을수록 의미의 양도 많아진다. 언어 형태의 양을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중첩이다. 중국어 역시 형태소나 단어의 중첩 형식이 있는데 대체로 중첩은 의미의 강화나 반복을 나타내므로 언어 형태의 양과 의미의 양이 서로 비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어 명사와 형용사의 중첩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 3) a. 人(사람) → 人人(사람마다)  
 b. 時刻(시각) → 時時刻刻(시시각각/늘)
- 4) a. 高興(즐겁다) → 高高興興(아주 즐겁다)  
 b. 糊塗(흐리멍덩하다) → 糊裏糊塗(아주 어리석고 흐리멍덩하다)

위의 예에서 보듯 중국어 명사의 중첩 형태는 ‘~마다’라는 의미를 산출하여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 하나가 아닌 여러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되며, 형용사는 중첩을 통해 정도의 심화를 설명한다. 중첩이라는 형식을 통해 언어 형태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는 의미적으로 양이 많거나 정도가 심화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개념이 더 많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단어는 형태적으로, 문장은 통사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그 복잡한 의미마다 혹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표현 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그 언어는 가장 비효율적인 언어가 될 것이다.

다음은 순서의 원리(Sequencing principle)를 살펴보자. 순서의 원리는 시간성이나 우선성이나 중요성 등의 정도가 언어 구조에 반영된 것을 말

2) 이는 Dirven & Verspoor(1998)이 제시한 분류 기준인데, 도상성의 여러 원리를 설명하는데 거의 정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다. 즉,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를 가질 때 언어 형식 또한 그 시간적 순서에 따르며, 여러 개의 단어를 배열할 때는 개념상의 우선 순위에 따라 그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경환(2008)은 중국어의 ‘把字句’의 여러 성질을 도상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순서의 원리에 따른 해석을 참고해보자.

- 5) a. 他把書賣了。  
그가 책을 팔아버렸다.  
b. \*他把書買了。

조경환(2008;29)은 시간순서원리(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에 따라 위의 예를 설명한다. a)의 경우 책을 팔기 위해서는 책이 나의 소유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書’가 파는 행위를 나타내는 ‘賣’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b)는 책을 사는 행위 ‘買’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 책이 이미 동사 앞 즉, 나의 소유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한다. 시간순서의 원리는 사건을 기술할 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게 되며 그 언어 요소들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적 비문을 생성하기 쉽다.

- 6) a. John came in and sat down.  
존이 들어와 앉았다.  
→ ?John sat down and came in.  
?존이 앉았고 들어왔다.  
b. 他去商店買東西。  
그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  
→ ?他買東西去商店。  
?그는 물건을 사고 가게에 간다.

이 시간 순서의 원리는 사동 구문의 논항 순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원인을 제공하는 사동주와 결과적 상황에 처하는 피사동주 역시 이러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장은 사동과 상반되는 화자의 인지 태도를 보이게 된다. 원인은 항상 결과에 우선하므로 원인을 제시하는 형태-통사적 요소가 먼저 진술되고 결과는 그에 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 상황에 처하는 요소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동 구문을 이루지 못하고 피동의 표현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아래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7) a. 원인(那個夢) → 결과(李四)

那個夢驚醒了李四。 그 꿈이 리쓰를 놀래켜 깨웠다.

那個夢使李四驚醒了。 그 꿈이 리쓰를 놀래켜 깨어나게 했다.

b. 결과(李四) → 원인(那個夢)

李四被那個夢驚醒了。 리쓰가 그 꿈으로 인해 놀라 깨어났다.

7a)는 논항이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사동 구문이지만, 7b)는 논항의 순서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결과를 우선 순위로 두는 피동문의 형식으로 나타내게 된다. 사태의 원인을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결과에 집중하느냐 하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사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거리의 원리(Distance principle) 또한 문장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도상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sup>3)</sup> 여기서 거리(distance)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혹은 형태소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문장 내에서 가깝게 위치하면 할수록 이들이 표상하는 개념 혹은 의미적인 근접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Haiman(1983:782)은 거리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4)</sup>

3) 이는 근접성의 원리(proximity principle)로 설명하기도 한다. 개념적으로 함께 속하는 형태-통사적 요소들은 언어적으로도 함께 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떨어져 있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거리의 원리와 동일하다.

i) 표현들 간의 언어적 거리는 그들 간의 개념적 거리에 상응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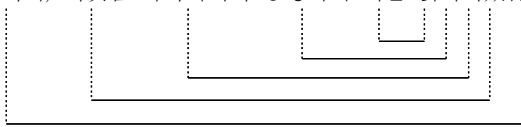
이는 문장 성분의 어순 배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어 배치에서 잘 나타난다.

- 8) a. 這個年輕人不辭辛苦地親自把菜籽送上門來。  
 이 젊은이는 고생을 마다않고 직접 씨앗을 집까지 가져다주었다.  
 b. 他把書一本一本地擺在書架上。  
 그는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책꽂이에 진열하였다. (劉月華 2001:743)
- 9) a. 我在教室裏就把作業做完了。  
 나는 교실에서 숙제를 다 하였다.  
 b. 我把手在盤裏洗了洗。  
 나는 손을 세숫대야에서 씻었다. (劉月華 2001:744)

8)은 묘사성 부사어와 ‘把+NP’의 어순을 설명하는 예로 a)의 ‘不辭辛苦地’는 주어의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 주어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b)의 ‘一本一本’은 ‘把’의 목적어인 ‘書’가 진열된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므로 주어가 아닌 ‘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9)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a)의 ‘在教室裏’는 주어의 소재(所在)를 설명하고 있고, b)의 ‘在盤裏’는 ‘把’의 목적어의 소재를 설명하고 있어 각각 해당 요소와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임지룡(1997:435~436)의 아래 그림은 국어의 교착성이 통사와 의미의 상관성에 관여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 4) Lackoff & John(1980:126)과 Givón(1995:51) 또한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 Givón(1995:51)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i) 기능적, 개념적, 인지적으로 더 가까운 실제들은 부호 층위에서 시간적/공간적으로 더 가깝게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ii) 기능적 운용소는 부호 층위에서 이와 관련성이 가장 많은 개념단위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더 가깝게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 5) The linguistic distance between expressions corresponds to the conceptual distance between them.

10) 아버지, 어젯밤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책을 읽히시었습니다.



10)은 ‘읽다’ 동사가 여러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형태소의 순서가 문장 내 여러 성분의 순서와 조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이 서술어의 확장 형태가 문장의 성분과 구조적으로 어떠한 도상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리 도상성의 원리에 따라 중국어 사동 표현을 살펴 보도록 하자.

### Ⅲ. 거리 도상의 원리에 따른 사동 표현 분석

사동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해서는 여전히 세부적인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혹은 사동주가 원인을 제공하여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적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에는 사동을 타동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결과 상황에 ‘놓이게 하는’ 사동 사건과 ‘어떤 행위’ 혹은 ‘어떤 결과 상황’의 피사동 사건이다.

사동은 타동과 의미적 연관성이 강한 문법 범주이며 그래서 통사적으로도 유사하게 실현되기도 한다. 많은 논의에서 사동과 타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타동의 연장을 사동으로 보기도 한다. 즉 사동을 타동성이 아주 높은 구문이라고 하는데 참여항의 수, 목적어의 영향성, 의도성 등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의 상당수가 사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때렸다’와 ‘나는 그를 죽였다’를 하나의 타동이나, 하나의 사동의

로 묶을 수는 없는 이유는 ‘때리다’와 ‘죽이다’가 여러 유사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결과 사건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때리다’가 다른 개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결과 사건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Shibatani (1976:2) 또한 ‘melt’와 ‘kick’의 차이점을 결과 사건을 유발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두었다. ‘melt’는 반드시 결과 사건을 낳지만 ‘kick’의 경우는 결과 사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그래서 전자는 사동의 의미 구조를 형성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11) a. \*John melted the ice but nothing happened to it.  
 ?존이 얼음을 녹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b. John kicked the ice but nothing happened to it.  
 존이 얼음을 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즉, 사동은 사동 사건으로 인한 피사동 사건의 유발이라는 의미 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중국어의 사동은 이를 주로 아래와 같은 형태-통사적 형식으로 나타낸다.

- 12) a. 手機方便了我們的生活。  
 휴대폰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다.  
 b. ...開了槍, 一下子打傷兩個, 打死一個。  
 ...총을 쏘아 한 번에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한 사람을 죽였다.  
 c. 這個重要發現使他們異常興奮。  
 이 중요한 발견이 그들로 하여금 유난히 흥분하게 하였다. (CCL)

12a)는 중심 동사 ‘方便’에 편리하게 하는 사동 행위와 편리해진 피사동 결과가 모두 내재되어 있고, 12b)는 ‘打傷’‘打死’는 동보식 복합동사 안에 총을 쏘는 사동 행위와 상해를 입거나 죽게 되는 피사동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12c)의 경우 위의 두 예와 달리 사동 행위와 피사동 행위가 분리되

어, 원인으로서의 사동주가 일으키는 추상적 행위 ‘使’와 그로 인해 피사동주가 ‘興奮’하게 되는 피사동 결과가 통사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들을 Haiman(1983)의 견해에 따라 다시 살펴보자. Haiman(1983;782)은 개념적 거리와 언어 표현상의 거리 관계는 서로 상응한다고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i) Z (synthetic or lexical)
  - ii) X+Y (agglutinative or morphological)
  - iii) X#Y (analytic)
  - iv) X#A#Y (periphrastic)
- (X, Y, Z는 형태소, #는 단어 경계, +는 형태 경계를 의미한다)

이는 X와 Y로 나타나는 두 개의 형태-통사적 거리로 그들 간의 개념적 거리를 형상화시킨 것이다. i)의 Z는 두 개의 개념이 하나의 형태소나 하나의 단어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고 ii)의 X+Y는 형태적 요소가 결합되어 해당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iii)은 X와 Y가 각각 개별적 형태소나 단어로 형상되어 단어 간의 경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iv)는 여기서 더 멀어져 다른 단어나 다른 요소에 해당하는 A가 단어 간의 경계와 함께 X와 Y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X와 Y간의 물리적 거리는 그들 간의 개념적 거리에 비례하므로 i)가 해당 요소간의 개념적 거리가 가장 가깝고, 단어 간의 경계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 iv)가 가장 멀다. 이에 따르면 a)의 ‘方便’은 하나의 단어로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을 모두 표현하고 있으므로 i)의 Z에 해당하고, b)의 ‘打傷’과 ‘打死’는 ‘打’와 ‘傷/死’로 분리되어 각각 사동과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므로 ii)의 X+Y에 해당하며, c)는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使’와 ‘興奮’로 분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요소 A도 삽입되어 있어 그들 간의 거리가 가장 먼 iv)의 X#A#Y에 해당한다.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은 의미 구조상 각각 원인과 결과를 표상하고 있으므로, 위의 진술을 바꾸어 말하자면 a)의 ‘方便’은 원

인과 결과의 개념적 거리가 가장 가까우며 c)의 ‘使’와 ‘興奮’은 원인과 결과의 개념적 거리가 가장 먼 사동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사동의 원인과 결과가 가지는 개념적 거리의 근접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Lackoff & John(1980;126)은 ‘원인을 나타내는 형태가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에 가까울수록 인과적 연결은 그만큼 더 강하다’<sup>6)</sup>고 하여 아래의 예로 거리의 도상적 원리를 설명하였다.

- 13) a. Sam killed Harry.  
 샘이 해리를 죽였다.  
 b. Sam caused Harry to die.  
 샘이 해리를 죽게 했다.

13a)는 원인과 결과가 하나의 동사 속에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만큼 원인과 결과의 관계 또한 아주 긴밀하다. 반면 13b)는 kill이 cause to die로 분리되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그 구성 단어의 간의 길이만큼 느슨해져 약한 인과성을 갖게 된다. 이보다 더 약한 인과성을 나타내려면 더 많은 형태 통사적 요소들이 더 많은 경계와 함께 문장 속에 삽입될 수도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Lackoff & John(1980;126)은 아래의 13c)를 제시한다.

- 13) c. Sam brought it about that Harry died.  
 샘이 해리가 죽는 일을 야기하였다.

사동에서 개념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형태로 원인(사동 사건)과 결과(피사동 사건)가 하나의 동사 안에 모두 내재되어 있다면 결국 그것은 가장 강한 사동성을 나

6) The CLSOER the forming indicating CAUSATION is to the form indicating the EFFECT, the STRONGER the causal link is.

타내게 된다. 이는 원인의 사동주가 다른 통사 성분의 개입으로 방해받지 않고 결과적 상황에 더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결과 사건은 반드시 실현된다.

반면, 통사 사동의 경우 문장 내에서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형태 통사적 거리가 다른 성분이 삽입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통사 사동의 사동주는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상 간극으로 인해 보다 간접적인 경로를 허용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동주의 사회적인 지위, 명령,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상황, 그 외 기타 방법으로 피사동주의 결과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동주의 의도와 통제성이 미치지 않아 피사동 사건이 이행되지 않는 예도 있다.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의 밀접한 유기성은 사건 전체에 대한 사동주의 통제성과 두 사건의 시공간적 합일점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분리는 시공간적 분리를 허용하면서 피사동 사건에 대한 사동주의 통제성이 떨어지게 되고 동시에 각각의 사건이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중국어의 통사 사동에서 ‘명령/허용/허락’을 나타내는 ‘使令(행위사동)’의 경우 피사동 사건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음 장에서는 어휘 사동에서 보여지는 원인-결과의 비분리성이 통사 사동의 원인-결과의 분리로 이어지면서 사동성이 약해지는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IV. 사동의 형태-통사적 요소의 비분리와 분리

원인(지시)에서 결과(수행)로 이어지는 사동의 이행은 사동주에서 출발하여 피사동주에 이르는 에너지의 전이 과정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사동주는 사건 전체에 대한 의도성과 통제성을 가지며<sup>7)</sup>, 피사동 사건을

7) ‘의도’와 ‘통제성’이 유정성 논항(행위주)의 고유한 자질이지만 [-유정성]의 사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8)

14) a. 這種女人會嚇跑男人。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을 놀래켜 도망가게 할 거예요.

b. 體育豐富了這裏人們的生活。

스포츠가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했다. (CCL)

14a)는 사동주 ‘這種女人’이 행위자로, 14b)의 경우 ‘體育’가 행위자에 준하는 원인으로 사동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男人’의 행동을 유발하거나 ‘這裏人們的生活’에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 사동이다. 사동사건 ‘嚇’‘豐富’의 행위 실현, 행위의 지속과 멈춤 등 행위 전반에 관한 통제는 전적으로 사동주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피사동주 ‘男人’의 ‘跑’라는

동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원인의 중요성이나 필연성을 ‘의도’와 ‘통제성’으로 개념적 은유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지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지수(2008:164)는 이를 ‘화자가 인지한 행위주의 영향성’으로 설명하고 이 영향력은 화자가 인지한 주관적 양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i) 히틀러가 유대인 200명을 죽였다.

위의 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혹은 예측하는 언어 현실은 히틀러가 직접 무기를 들고 200명에 대해 살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히틀러가 직접 살상 행위를 한 행위주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직접 사동이 나타내는 사동성의 정도를 이용하여 히틀러가 그만큼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동주가 직접적으로 결과 사건을 이루지 않았는데도 직접 사동을 사용하는 것은 사건에 미치는 행위주의 영향력의 양이 그만큼 크다고 화자는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주관적 인지 속에서 원인의 사동주는 비록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 행위주의 의도와 통제력과 동일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동의 강도 차이로 인한 언어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8) 정성여(2005:58)는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의 의미 표시에서 CAUSE 대신 CONTROL을 제안하는 다른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CAUSE가 CONTROL의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CAUSE가 가지는 결과에 대한 사동주의 적극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동에서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동주의 통제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작 이행과 ‘這裏人們的豐富的生活’라는 결과 또한 사동주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사동주가 사건을 의도하고 통제하려면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휘 사동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가지므로 사동주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의도하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하나의 형태 안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통사 사동은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각각 형태-통사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간극은 사동주의 사건에 대한 참여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동주의 사건에 대한 의도와 통제 또한 느슨해질 수 있다. Shibatani(1973)는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의 분리 여부가 시간, 장소, 방식 부사어의 영향권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 15) a. \*오늘 아침 엄마는 부엌에서 일을 하시며 방에 있는 동생에게 혼자서 옷을 입히셨다.  
 b. 오늘 아침 엄마는 부엌에서 일을 하시며 방에 있는 동생에게 혼자서 옷을 입게 하셨다.
- 16) a. 감독이 여배우를 큰 소리로 웃겼다.  
 b. 감독이 여배우에게 큰 소리로 웃게 했다.

이는 15a)에서 보듯 통사적 요소의 삽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입히다’는 한국어의 어휘 사동에 해당하며 사동주의 사건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암시하지만, 사동주 ‘(부엌에 있는) 엄마’는 피사동주 ‘(방에 있는) 동생’에게 옷을 입히는 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므로 비문이 된다. 반면 15b)에서는 ‘입게 하다’의 통사 사동이 두 사건의 공간적 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16)의 경우 또한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웃기다’의 어휘 사동에서는 사동주의 동작 방식을 나타내지만 ‘웃게 하다’의 통사 사동에서는 더

이상 사동주의 동작 방식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통사 사동에서는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분리되므로 해당 부사어들이 사건을 각각 수식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사건이 분리되지 않은 어휘 사동의 경우 어느 한 사건만을 따로 수식할 수는 없다. 중국어 사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 17) a. 那天老大娘哭紅了眼睛。  
 그날 할머니는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  
 b. 父親在房間裏打哭了孩子。  
 아버지는 방에서 아이를 때려 울렸다.

17a)에서 할머니가 우는 사건과 눈이 빨개지는 사건은 동일한 시간 ‘那天’에 발생한 것이므로 두 개의 사건은 분리될 수 없고, 17b)에서 아버지가 때리고 아이가 우는 사건은 동일한 장소 ‘房間’에서 발생 한 것으로 두 개의 사건은 분리될 수 없다. 반면 아래 18)의 경우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각기 다른 시간적 배경(今天早上, 明天)과 공간적 배경(廚房, 房間)을 가지고 있어 두 사건은 분리되고 사동주의 소극적 통제로 피사동주의 동작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진다.

- 18) a. 媽媽今天早上讓弟弟明天穿那件衣服。  
 엄마는 오늘 아침 남동생에게 내일은 그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  
 b. 媽媽在廚房裏大聲地說讓在房間裏的弟弟穿衣服。  
 엄마가 주방에서 큰소리로 방안에 있는 남동생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동일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있다면 사동주는 피사동주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고 이로 인해 사동주의 통제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피사동주는 자기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사 사동에서 피사동주가 피사동 사건에 대해 행위주나 경험주의 의미역을 가지도록 한다.

19) a. 爸爸讓他學習。

아버지가 그에게 공부하라고 하셨다.

b. 失敗使我灰心。

실패가 나를 낙담하게 했다.

19a)에서 피사동주 ‘他’는 ‘學習’을 수행하고 19b)에서 ‘我’는 ‘灰心’의 심리적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피사동 사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비록 피사동주가 사동주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해도 어휘 사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피사동주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이지수(2008;151)는 아래 20b)가 비적격문이 되는 것은 피사동주가 [-유정성]이라거나 [-피사동주 의지]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피사동주 ‘그녀의 속(마음)’은 스스로 타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20) a. 그녀는 속을 태웠다.

b. \*그녀는 속을 태우게 했다.

이는 중국어 어휘 사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1) a. 他熱了熱剩菜。

그는 먹다 남은 음식을 데웠다.

b. \*他使剩菜熱了。

22) a. 小王一拳打倒了小李。

샤오왕은 주먹 한 대로 샤오리를 때려 눕혔다.

b. ?小王一拳使小李打倒了。

21b) 역시 20b)와 같은 이유로 비문이 되는데, 피사동주 ‘菜’는 스스로 ‘熱’해질 수 없으므로 피사동주가 피사동 사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에서 ‘打(샤오왕이 때림)’는 사동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을 말하며 ‘倒(샤오리가 넘어짐)’는 피사동 사건으로서의 결과적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피사동주는 ‘小李’는 ‘打倒’가 아니라 오로지 ‘倒’에 대해서만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22b)의 통사 구조상 ‘小李’가 ‘打倒’ 전체에 대해 행위주의 역할을 하는 형상이 되므로, 샤오리가 맞아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샤오왕이 샤오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때려눕히게 하는 시동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sup>9)</sup> 아래의 두 문장도 동일한 예에 속한다.

- 23) a. 洪水冲垮了大壩。  
 (→ 洪水冲, 大壩垮)  
 홍수가 댐을 산산이 파괴해버렸다.  
 b. \*洪水使大壩冲垮了。  
 (→ ?大壩冲, 大壩垮)
- 24) a. 孩子哭醒了我。  
 (→ 孩子哭, 我醒)  
 아이가 울어 나를 깨웠다.  
 b. \*孩子讓我哭醒了。  
 (→ ?我哭, 我醒)

이렇게 통사 사동의 피사동주가 피사동 사건에 대해 행위주 혹은 경험주의 의미역을 가지게 됨으로서 피사동주는 피사동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의지를 갖는다. 이는 피사동 사건의 이행 여부가 피사동주에게 달려 있는 ‘명령/허용/허락’의 개념이 통사 사동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 9) 어휘 사동과 통사 사동이 이렇게 서로 호환될 수 있으려면 결국 해당 동사구는 사동주와 피사동주를 모두 주어 논항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동사로는 능격동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何元建·王玲玲(2002)은 능격동사를 형태적, 통사적 굴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동에 쓰일 수 있는 동사로 보았다.
- i) a. 參觀訪問擴大了同學們的知識面。  
 b. 參觀訪問使同學們擴大了知識面。  
 c. 參觀訪問使同學們的知識面擴大了。  
 이에 따르면 위의 문장들이 모두 호환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擴大’가 능격동사로서 세 가지 유형의 논항을 모두 주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다.

- 25) a. 我讓他們坐在我的右側。  
 (但他們不肯。)(他們就坐下來了。)  
 나는 그들에게 내 오른쪽에 앉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앉았다.)
- b. 甘肅記...還捏著我的手, 叫我放心。  
 (但我怎麼也不能放心。)(我就放心了。)  
 깐서기는...내 손을 잡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난 아무래도 안심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안심이 되었다.)  
 (CCL)

25)에서 ‘讓/叫’는 ‘명령하다/지시하다’의 어휘 의미로 명령이나 허용 등을 나타낸다. 사동주가 사동 사건을 주관하고 있긴 하지만 피사동주는 괄호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동주가 명령하거나 허용한 피사동 사건 즉, 결과 사건을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어 사동은 의미적 측면에서 ‘使令(행위사동)’과 ‘致使(결과사동)’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단순히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이며, 후자는 ‘원인과 결과 사건을 모두 나타내는’ 사동을 말한다.

- 26) a. 爸爸讓他學習。  
 아빠가 그에게 공부하라고 하신다.
- b. 勞累過度使他的左眼也失明了。  
 지나친 과로가 그의 왼쪽 눈도 실명하게 하였다.

26a)는 ‘使令(행위사동)’의 예로 피사동주가 피사동 사건 ‘學習’을 실제로 수행하였느냐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26b)는 ‘致使(결과사동)’의 예로 피사동 사건으로서의 결과적 상황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동의 결과 사건이 사동을 타동과 구분 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위 사동에서 피사동 사건의 이행 여부가 결정

적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개념화 작용 때문이다. 사동은 능동, 피동과 마찬가지로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기제들 중 하나로 사동으로 표현된 문장은 실제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라기보다 사건에 대해 화자의 개념화 작용이 개입된 진술이다. 화자는 피사동 사건이 사동 사건의 발생 이후에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Shibatani(1976)의 견해는 이러한 ‘개념화’와 연결된다. 바꾸어 말해, 실제로 사동주가 사동 사건을 주관할 때, 후행하게 될 피사동 사건의 발생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때 피사동 사건은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27) 你讓我帶弟弟去吃冰激凌，但我不願去，這應該是你的事。

너는 내게 남동생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라고 했지만 난 가기 싫어. 그건 당연히 네 일이야. (CCL)

27)은 앞절과 뒷절이 전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복문이다. 사동으로 표현된 앞절에서 사동주 ‘你’는 사동사 ‘讓’으로 피사동주 ‘我’가 ‘帶弟弟去吃冰激凌’이라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으나 후행하는 뒷절의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피사동 사건은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 어휘 사동은 피사동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닌 실제 결과로 이어져야만 한다.

28) a. \*아이가 눈을 녹였으나 눈은 녹지 않았다.

b. 아이가 눈을 녹게 하였으나 눈은 녹지 않았다.

29) a. \*老人哭紅了雙眼，但是眼睛沒有紅。

b. 老人哭紅了雙眼，眼睛紅紅的。

노인은 울어 두 눈이 붉어졌는데 눈이 아주 붉어졌다.

따라서 28a)와 29a)와 같이 어휘 사동이 결과의 미실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 비적격문이 된다. 정리하자면, 사동의 형태-통사적 요소의 분리는 각 사건의 시공간적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결과 사건에 대한 사

동주의 통제성 약화와 동시에 피사동주의 독립적 의지를 부여하게 되고, 이로 결과적 사건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행위사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V. 마무리

사동은 일종의 의미적 범주로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형식은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형식을 크게 어휘 사동과 통사 사동으로 나누고 그들의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만일 차이를 가진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이를 거리 도상의 원리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동의 의미 구조는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건을 표상하는 형태-통사적 요소가 문장 내에서 가지는 물리적 거리에 따라 두 사건의 개념적 거리 또한 비례한다. 이에 따르면 사동 사건(원인)과 피사동 사건(결과)의 형태-통사적 요소가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로 나타나는 어휘 사동의 경우 그 물리적 거리가 가장 짧으므로 두 사건의 인과성 또한 가장 강력하며, 이들이 분리되어 있는 통사 사동의 경우 어휘 사동에 비해 그 인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동주의 사건 전체에 대한 의도나 통제성, 결과 사건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휘 사동과 통사 사동의 의미적 특징 등을 구성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어휘 사동과 통사 사동이 사건에 대한 사동주의 참여 여부 외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즉, 사동성의 차이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자주 논의되는 두 가지 사동 유형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사동의 ‘把字句’와 ‘V得’ 등 더 다양한 사동 표현을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이들 사동 표현과 도상성의 원리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의에서 다루어 본고에서 얻은 결론을 더욱 보편화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김성주, <국어 사동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박미정, <현대 중국어의 사동 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김광현, <영어 통사구조의 도상성>,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유철기, <영어 형용사 어순의 도상성 연구> 《담화와 인지》 Vol.11 No.2, 2004.
- 윤병달, 《언어와 의미-문법현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 동인출판사, 2009.
- 이지수, <타동성과 국어 사동 표현의 의미>, 《語文研究》 vol.36 no.2, 2008.
- 이진병, <국어 사동문의 문법성과 사동성>, 《한국언어문학》 vol.68 no.-, 2009.
- 임지룡, 《인지의미론》(4판), 탑출판사, 1997.
- 조경환, <과자구(把字句)와 도상성>, 《中國語文論叢》 Vol.37 No.-, 2008.
- 정성여, <규범적 사동구문과 비규범적 사동구문>, 《어학연구》 41권 1호, 2005.
- 譚景春, <致使動詞及其相關句型>, 《語法研究和探索》 第8期, 1997.
- 陳昌來, <論現代漢語的致使結構>, 《井岡山師範學院學報》 第3期, 2001.
- 何元建·王玲玲, <論漢語使役句>, 《漢語學習》 第4期, 2002.
- 周 紅, 《現代漢語致使範疇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5.
- 宛政新, 《現代漢語致使句研究》, 浙江大學出版社, 2005.
- Comrie, Bernard,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Dirven & Verspoor,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Benjamins, 1989.
- Haiman, John,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1989.

- Lakoff & Joh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Shibatani, Masayosi, "Lexical versus Periphrase Causative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281-297, 1973.
- Shibatani, Masayosi,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A Conspectus", *Syntax and Semantics* 6,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中文提要>

使動是一種意義範疇，雖表達使動的形式比較多，但我們可以把它分成兩類——詞彙使動和句法使動。本稿要考察這兩類使動形式的意思是否一致，如不同，在哪些方面在怎樣不同？筆者認為兩類形式表現的事件本身不會有不同之處，而使動的程度上有差異。使動的意義結構具有原因事件與結果事件，句子裏有表現各事件的形態—句法形式。按距離象似性原理，形態—句法形式之間的語言距離與它們之間的概念距離相應。所以詞彙使動因兩個事件在一個語素或詞而概念距離也近，兩個事件的因果性也很強。但句法使動因兩個事件分離而概念距離也遠，兩個事件的因果性也比詞彙使動差。形態句法要素的近接性為詞彙使動與句法使動的意義上的區別起作用。

주제어 : 어휘 사동, 통사 사동, 도상성, 거리 도상